

# 安 “전대 열어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”...연대 대신 맞짱

## 안철수 '문안박 연대' 거절...새정치 시계제로 혼돈 속으로

새정치민주연합이 '문안박(문재인·안철수·박원순) 연대' 무산으로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등 시계제로 혼돈 상태에 빠져들었다.

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과 문재인 대표가 모두 출마하는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지도부에게 개편을 둘러싼 주류,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격화할 전망이다.

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당 내부는 당 밖의 신당 추진세력에겐 기회의 문을 더욱 넓히는 양상으로 이어져 야권재편을 둘러싼 정세력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.

29일 안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개최 역제안은 그동안 안 전 대표가 지도부제 논의가 본질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. 이는 문안박 연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.

특히 안 전 대표는 혁신전대에 자신과 문 대표가 모두 참여할 것을 주문하면서 문 대표와의 정면승부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. 사실상 차기 대권경쟁의 조기점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.

어쨌든 안 전 대표는 역제안을 통해 문안박 연대를 무산시킨 한편 문 대표 사퇴와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논쟁의 초점으로 만들면서 문 대표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만들었다. 문 대표가 안 전 대표에게 던진 공이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온 것이다.

이에 비주류 측은 벌써 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카드를 옹호하면서 문 대표에게 수송을 요구하고 있다.

주송을 최고위원은 “문안박 리모델링으로는 돌아선 민심을 돌이키기 힘들다”면서 “혁신전당대회는 흔들리는 호남민심을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”이라고 말했다. 또 “문안박 연대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“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안 전 대표의 고언은 당에 마치 막희망과 애정을 가진 분들의 소리없는 절규”라며 거세했다.

반면, 주류 측은 안 전 대표의 혁신 전대 제안이 문 대표의 대표적 사퇴와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.

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“좀더 의견을 듣고 난 뒤에 판단하겠다”고 답변을 유보했지만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공천 혁신안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

## 주류 “혁신안 백지화” 불만

## 비주류, 문대표 결단 촉구

## 신당 추진 동력 될 수도

## 특단의 대책 없인 탈당 사태

했음을 고려하면 쉽게 거취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.

문 대표의 한 측근은 “오늘 회견은 문 대표 사퇴와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출마선언, 혁신안 백지화 아니냐”고 말했다.

문 대표 측 한 의원은 “안 전 대표가 이렇게 견어할 것이라면 왜 열을 남게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겠다”며 “안 전 대표가 말한 혁신 전대는 회복할 수 없는 ‘분열 전대’가 될 것”이라고 비판했다.

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해온 인사들도 곤혹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다. 중진 의원들은 조만간 회동해 사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석현 국회부의장은 “전대를 하면 당이 지나친 계파싸움으로 갈 수 있어 문안박과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합의추진을 통해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지적했다. 유인태 의원은 “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머리가 아프다. 다시 중지를 모아봐야겠다”고 말했다.

일각에선 새정치연합 내 갈등을 안정화할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원심력이 가속화하면 당 밖의 신당 세력을 연결고리로 한 탈당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.

한편, 새정치연합 호남 의원 18명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문 대표가 광주 조선대 특강에서 ‘문안박’ 연대를 제안하며 비주류 의원들을 “공천권을 요구하는 사람”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.

호남 의원들은 또 ‘문안박’ 연대에 대해 “통합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지도부의 협의가 없었다.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지도부로서는 미흡해 보아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이날 성명에는 27명의 호남 의원 가운데 강동원·권은희·김관영·김동철·김성곤·김영록·박민수·박지원·박혜자·유성엽·이계호·이운석·이춘석·임내현·장병완·주승용·최규성·황주홍 등 18명이 참여했다.

박지원기자@kwpark@kwangju.co.kr



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'2017 정권교체를 위한 하나되는 통합신당'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추진위 고문 및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만세를 외치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# “경제·행복·통일정당”...박주선 신당 추진위 출범

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해온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9일 광주에서 신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창당 작업을 본격화했다.

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통합신당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.

추진위에는 라종일 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, 최재승 전 국회 문화관광위원장, 노성만 전 전남대 총장, 김원욱 5·18 기념재단 이사 등 4명이 고문으로 참여했다. 박 의원과 이국 CJB청주방송 대표, 이영훈 전 한국 JC회장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.

## 정대철·조경태·유성엽 축사

## 김혁중총장 등 33명 추진위원

## 내달 10일까지 받기인 기구

안중운 전 농림부차관, 이강수 전 고창군수, 박주원 전 안산시장, 김상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, 김혁중 광주대 총장 등 모두 33명이 추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.

출범식에서는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, 같은 당의 조경태·유성엽 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박광태 전 광주시장, 박

준영 전 전남지사, 김민석 원외 정당 민주당 새로운시작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. 정균환·유선호·장세환·신종식·박명서 등 전직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다.

박 의원은 “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받았고 호남 정치의 정통성도 계승할 수 없는 정당으로 전락했다”며 “총선, 대선에서 참패를 막으려면 야당을 창조적으로 재편,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 대안정당을 만들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박 의원은 또 “통합신당은 보수와 진보의 넓은 틀에 갇힌 이념정치에서 벗어나

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융합한 중도 개혁 민생실용 정당을 지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통합신당은 3대 비전으로 ▲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제정당 ▲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행복정당 ▲아시아-태평양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통일정당을 제시했다.

박 의원은 다음달 10일까지 모든 신당 지지세력이 참여하는 통합발기인대회 공동준비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동참을 호소했다. /최현배기자 cki@kwangju.co.kr

#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직위 상실...입지자 7~8명 거론

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고 구청장 직위를 상실했다. 대법원 2부(주심 조희대 대법관)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

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.

유태명 전 구청장이 2012년 옥중사퇴한 데 이어 노 구청장마저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동구청 안팎이

## 전임 청장 이어 또 선거법 낙마

##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보선

작잡한 분위기가. 노 구청장에 앞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유 전 구청장은 전직 동장의 투신 사망을 부른 불법 조직선거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교도소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. 이후 약 3개월간 이어지던 구청장 공백 끝에 보궐선거로 당

선된 노 구청장마저 이날 또다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물러나게 됐다.

노 구청장의 직위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호남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광주 동구에서 차기 구청장을 향한 지역 인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.

구청장 권한대행이자 내년 1월 공로연수를 앞둔 임영일 부구청장, 임택 광주시의원, 최현주 전 광주시 비서실장, 안재경 전 광주지방검찰청장, 양해령 전 광주시의원, 이선순 동구의회 의장, 오형근 성형의

과 의사 등이 차기 동구청장 출마 예상자로 자전타전 거론되고 있다.

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동구청장 보궐선거는 인물론보다는 총선 상황과 연계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책임론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.

지역의 유력 정치인이나 현역 박주선의원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동구청장 후보에 출마할 인물들도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전망된다. /최현배기자 cki@kwangju.co.kr

**HNT 하나투어**

**제 14회 하나투어 결혼 박람회**  
 2015. 12. 12(토) ~ 13(일) 11:00 ~ 19:00  
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 
 (동구 불로동 96-7)  
 문의전화 062) 228-1199  
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 
 예약 시, SM면세점 3만원권 선불카드 제공

**하나허니문 결혼박람회 추천 상품**

**클래식** ABW100\_KE/OZ/LJ\_R  
푸켓 6일

더 나가 오션뷰 풀빌라(2+2)

총상품가 1,749,000원~

현지지불 ▶ 가이드+기사경비 포함, 선택경비 있음

출발일 : 2016년 1월 ~ 토/일/월요일

특 전 : 커플 80만원 할인/데일리 감작성물 제공/로맨틱 스낵촬영 & 오토투어 포함/스파마사지 3회

**클래식** AXW100\_SQ/KE/QR\_H  
몰디브 6일

하이드러웨이 디럭스 워터빌라 위드 풀

총상품가 3,763,600원~

현지지불 ▶ 몰디브 공항택스(1인 \$25), 현지선택경비

출발일 : 2016년 1월 ~ 토/일/월요일

특 전 : 30분 커플마사지 1회 무료 제공  
30분 스낵촬영 무료 제공(50매 - CD로 증정)

박람회 사전 예약 바로가기

■ 여행상품 가격표(내역) 유류할증료, 공항이용료, 전정보유료, 관광진흥개발기금, 운송/숙박/식사요금, 여행자보험료,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.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. ■ [유류할증료]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,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. ■ [가이드경비]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. ■ [여행사]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.hanatur.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■ [선택경비]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.hanatur.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) ■ [부동산]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보를 받으십시오. ■ [관광사] 동북연호 제29004-1993-6 (종로구청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) 하나투어 ■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/ 휴일 2급호텔 이상 2인 1실/고동면 항공/버스/해리(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) ■ 고객청탁/불만접수 Tel 1577-1233(ARS 안내번호 0번) ■ 영일 보증보험 22억 (1천만원 가입) \*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,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\*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.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www.hanatur.com)를 참조해 주십시오.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● 여행 유의 2 ● 여행 자제 3 ● 필수 권고 4 ● 여행 금지

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| www.HanaTour.com